

한우

한우협회,
소외된 이웃에게
한우로 사랑 전달

연말연시를 맞아 한우업체가 소외된 이웃에 훈훈한 나눔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우협회는 지난 12월 15일 서울 강서등촌4사회복지관을 찾아 한우곰탕 시식회를 가졌다. 또 부산경남도지회는 창원 및 부산지역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한우고기를 전달했다.

한우협 서울시내 곳곳 누비며 나눔 실천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서울시내 곳곳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순회하며 한우나눔 행사를 벌이고 있다.

종로와 용산에 이어 지난 12월 15일에는 강서등촌4사회복지관에서 한우곰탕 2천인분을 전달하며 한우나눔행사를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우 회장을 비롯해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강서을)과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 축산신문 윤봉중 회장이 함께 했다.

이강우 회장은 “전국의 한우농가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한우자조금을 통해 소외된 이웃

에게 한우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넉넉하지는 않지만 한우농가들이 더 많은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우협회는 사회복지관에서 한우곰탕을 전달한데 이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한우곰탕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우협

부산경남지회 복지시설 찾아 한우 나눔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지회장 이희대)는 연말을 맞아 지난 12월 5일과 9일 총 3천900여 명분의 한우고기 550kg(1천250만원 상당)를 창원지역 16개 노인요양시설, 아동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과 부산지역 22개 아동복지시설에 제공하며 한우농가의 사랑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가 주관해 매년 진행해 온 ‘한우나눔행사’는 한우농가들이 더 어려운 이웃을 찾아 한우고기를 전달함으로써 더 큰 사랑의 의미를 더했다.

이희대 지회장은 “각종 규제화 FTA 체결 등으로 한우산업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사랑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과 같이 성장한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축산신문 이희영 권재만 기자 [2014. 12. 17]

한돈

한돈자조금,
웹어워드코리아
최우수상 수상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한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한돈닷컴이 국내 웹어워드 평가위원단이 선정하는 제 11회 웹어워드코리아 서비스 프로모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11회를 맞는 웹어워드코리아는 국내를 대표하는 웹 전문가 평가위원단 2,000명이 매년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모바일 기반의 웹사이트들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한돈자조금은 한돈닷컴을 통해 요리, 다이어트, 건강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소비자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왔다. 더불어 다이어트 체험단, 쿠킹클래스 등 체험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며 콘텐츠를 확산시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돈닷컴은 웹사이트 편의성, 디자인,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의 만족도를 상승시켰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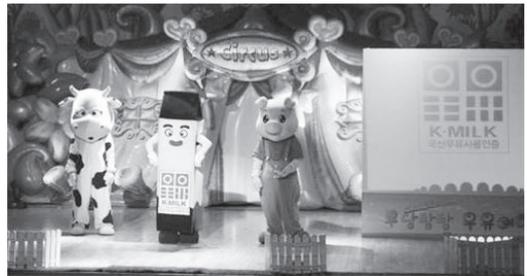
한돈자조금 이병규 위원장은 “지난 11월에 수상한 올해의 광고상에 이어 웹어워드코리아 최우수상까지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한돈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어워

드코리아 시상식은 12월 16일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진행됐다.

낙농
육우

우유자조금,
‘어린이우유체험교실
캐릭터 대공연’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정렬)가 12월 16일 부천 오정아트홀 대강당에서 경기지역 어린이집·유치원 원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세계 최고 우유를 찾아라! 우당탕당 우유 여행> 어린이우유체험교실 캐릭터 대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대공연은 어린이들의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우유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아이들이 우유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교육영상 관람, 캐릭터 인형극 및 율동으로 구성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캐릭터 인형극에는 우리흰우유, 우유형아, 건강이, 뽕이, 라차차, 다내꺼아저씨가 등장해 114가지 영양소를 함유한 우리 흰 우유 섭취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뼈 건강과 피부미용 등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하루 우유 3잔을 꾸준

히 마실 것을 강조했다. 특히 국산우유 사용 인증 마크(K·MILK)를 부착한 ‘우리흰우유’ 캐릭터가 등장해 국산 우유 품질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유자조금관리위원회 손정렬 위원장은 “이번 공연은 우유 섭취가 반드시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유 음용의 중요성을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각 연령대의 특성에 맞춘 홍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우리 흰 우유 섭취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육계 한국육계협회
홈페이지
새단장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는 협회 홈페이지(www.chicken.or.kr)를 리뉴얼해 최근 오픈했다. 새단장한 홈페이지는 전체적인 디자인과 메뉴 구성 및 콘텐츠를 새롭게 재편성해 웹표준(W3C)과 웹접근성 강화, 관리자 기능 개선, 간결한 디자인에 역점을 두고 제작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익스플로어(IE 6, 7, 8, 9)는 물론 크롬(Chrome), 사파리(Safari), 파이어폭스(Firefox), 오페라(Opera)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접속이 가능하며,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키보드 탭(Tab)키만으로 모든 메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스마트폰 이용의 대중화에 따라 모바일(안드로이드, 아이폰)에서도 PC에서처럼 홈페이

지의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의 메뉴는 협회소개, 닭고기 소비홍보, 육계소식, 월간닭고기, 시세, 통계, 닭고기 생생정보 등 총 7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육계소식 메뉴에 설문조사(양케이트) 기능을 삽입해 닭고기산업의 주요 이슈에 대해 소비자들의 동향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육계협회에서는 이번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을 기념하여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치킨 외식 상품권을 제공하는 ‘축하메시지 달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토종닭 한국토종닭협회,
마이크로페이지 개설
‘한닭’ 홍보 박차

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는 최근 토종닭 홍보를 위한 마이크로페이지(www.한닭.kr)를 개설했다. 닭고기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토종닭의 새로운 이름 ‘한닭’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다. 또한 토종닭 인증제에 대해서도 홍보 중에 있다. 한편, 토종닭협회는 지난 12월 3일 양지훈 셰프와 함께 ‘한닭 쿠킹클래스’를 진행했다.

축산신문 김수형기자 [2014. 12. 10]

양봉

천연꿀 첫 개방…
양봉업계
‘산업 붕괴 우려’

12월 10일 타결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천연꿀에 대한 관세를 15년 뒤에 완전철폐하기로 것과 관련, 양봉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2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FTA가 발효되면 현행 243%인 천연꿀 관세가 15년 뒤 모두 사라진다. 그동안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연합(EU)과의 FTA에서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무관세로 꿀을 들여온 적은 있지만 관세철폐를 통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국내 연평균 꿀 생산량은 2만5천t이고 1kg당 7천800원 정도다. 이에 비해 베트남산 꿀은 1kg에 2천500원대로 관세가 철폐되면 국산의 3분의 1수준에 들어오게 된다. 현재 국내에 TRQ물량으로 들어

오는 미국산 꿀의 가격은 1kg에 4천원, 호주산은 2천원 정도다.

지난해 천연꿀 수입은 688t 규모로 미국에서 450t, 뉴질랜드에서 110t, 호주에서 82t이 각각 들어왔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수입한 양은 7t 정도로 적지만 관세가 없어지고 베트남산 꿀이 무제한으로 들어올 경우 양봉농가의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규혁 한국양봉협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봄에만 꿀을 생산할 수 있는데 반해 베트남은 사시사철 생산이 가능하다”면서 “국산 꿀의 가격은 세계에서 두세 번째로 높는데 꿀시장이 개방되면 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벌이 과수 등의 꽃가루를 옮기는 등 생태계에서 역할이 크다”면서 “공익적 가치가 큰 만큼 양봉산업 붕괴는 전체 농업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4. 12. 11]

